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예상대로 이준석이 대표로 당선되면서 2030정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와 함께 어렵팠하던 2030정치의 모습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헌정사상 조우의 30대 야당 대표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민의힘 대표 경선까지 휩쓴 '쓰나미'라고까지 표현되는 2030정치의 실체는 무엇인가?

실제 전체 유권자 수 가운데 2030세대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되지 않는다. 베이비부머 민주화 세대가 2030세대였을 때는 2030세대만으로도 50%를 훌쩍 넘겼다. 따라서 당시에는 2030세대가 50%가 넘는 숫자의 힘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정치판을 흔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2030세대는 30%도 되지 않으면서도 과거 민주화 세대의 2030 시기와 같은 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준석 이후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2030정

이준석 이후

치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에 대한 2030세대의 생각이나 가치관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은 숫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도층의 생각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2030세대는 대체로 초중고와 대학시절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2030세대는 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경쟁을 받아들인 2030세대들은 경쟁에서의 공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경쟁으로 인한 승자독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설사 그 경쟁이 공정하다고 해도 승자가 모든 것은 갖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공존과 공생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2030세대들은 정치적 화법도 다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성장한 세대로 문제의 도출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에 익숙하다. 그러다 보니 정치 토론도 상대를 이분법이나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려 하기보다는 합리적 논증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선호한다.

2030세대 정치인의 이러한 생각은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선출된 85년생 이준석과 90년생 김용태 최고위원의 수락 연설이나 포부에서도 드러난다. 이준석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비빔밥을 예로 들며 각 요소가 각각의 맛을 내면서 전체적 조화 즉 비빔밥의 맛을 완성시키는 논리를 내세웠다. 즉 사회 각각의 구성원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배틀토론을 통해 대변인을 뽑겠다며 경쟁력 있는 인물

을 뽑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다.

또한 '상호 간의 논리적인 비판이나 진심 어린 지적이 아닌, 불필요한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에 맞서 줄 것을 우리 사회에 요청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586의 영무새'라거나 '소신 없는 거수기'라 비판하고, 조국 사태를 '반능력주의의 극단적 사례'로 규정한다.

물론 이준석을 중심으로 2030세대의 가치, 즉 공정과 공존의 사회정의 및 극단적 반이성적인 정치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찬반이나 다양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거부하거나 부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중도층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2030세대와 중도층이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와 같이 비슷한 표심을 드러낼 경우 이들 계층이 지향하는 경쟁·공정·공생 및 이성적 토론 등은 우리 미래 사회의 시대정신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러한 사회가 되면 현재와 같은 정치적 갈등이나 극단적 양극화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이러한 분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에, 이준석 현상을 일시적으로 여겨 조만간에 소멸될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트렌드로 보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젠 이준석 현상은 부정할 하고는 현실이다. 결국 이를 기성 사회나 기성 정치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이 달라질 것이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연합교회 담임목사

나의 외조부님은 1899년 한국에 온 부해리(본명 Henry Munro Bruen, 1874-1959) 선교사에 의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후 선교사를 도와 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에 동역하였다. 외조부는 평양 신학교를 다니다 중퇴하고 목회를 하였으며 작은 외조부는 여수 애양원과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신안원 목사님과 동문수학하시다 졸업하셨다.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공산분자가 처형되려는 순간 구명하여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후 손 목사님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 공산군의 총탄을 맞고 순교하였다.

작은 외조부 소도열 목사는 평양신학교 34회 졸업생으로 손 목사님과 함께 수학했다. 늘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도 혼신을 다했다. 신학생 시절 평양의 성서구락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후에 예정통합 경서노회회의 창단 멤버로서 경서노회장과 성경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작은 외조부는 손 목사와 비슷하게 6·25 전쟁 당시 두 아들을 하나님께 보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큰 아들 소재명과 둘째 아들 제덕은 마을의 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독교인들을 숨겨주고 보살피는 일을 하다가 인민군에게 총살당했다. 공산당의 위협을 피해 교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발각되어 작은 외조부의 두 아들도 순교한 것이다. 작은 외조부님은 아들들을 가슴에 묻고 죽인 이들을 용서하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어머니의 사촌이신 두 분의 순교는 큰 충격이었고 남겨진 그분들의 성경책은 추억의 대상이 아니라 잔혹한 총탄의 흔적이며 원수를 상기하게 만드는 그날의 증언 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신앙의 힘으로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목회자의 사모로 평생을 사셨다.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아렸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중략)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가사가 있다. 나의 어머니는 일제시대 소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국어를 배우지 않던 시기에 일본어를 익히고 써야만 했다. 그래서 한글을 읽고 쓰실 수는 있지만 땀겨 부족함이 늘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책을 읽으셨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중얼중얼 거리는 줄 착각할 정도로 소리를 내어 읽고 또 읽으셨다.

그렇게 읽어 내려가시다 레위기 19장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라는 구절이나 누가복음 6장의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라는 대목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묻고 또 물었을 것이다. 내 형제를 죽인 원수를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이 얼마나 대단한 자비인가. 그런데 사랑까지 하라니 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어머니와 외가 어르신들께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지 차마 물어 보지는 못하였다. 다만 신앙의 힘으로 이기셨으라 짐작을 한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된 국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이백 년 이상을 갈라져 지냈던 역사가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앗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 후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아 북이스라엘 주님을 위로하고 한 민족임을 상기시키고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지키기를 제안한다. 아픔을 겪은 북이스라엘 주민을 먼저 위로하고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을 배부신 하나님께 돌아가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주민이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몇몇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북한은 더 폐쇄되었고 고립되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차 가능하기 힘든 때이다. 역사를 잊고 경계망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의 호의를 무시하며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말이다. 그중에서 흑시 겸손하게 다가오는 이가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며 말이다.

기고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참 행복했다. 이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돌아간다. 시작할 때의 마음을 되새겨 본다. 19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다. 학점 3.0을 넘으면 웬만한 대기업은 다 들어가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기업은 썩 내키지 않았다.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사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했다.

그래서 시작한 고시 공부가 여러 해 걸렸다. 1996년에 가까스로 지방고시(지금의 행정고시 지역 모집)의 문턱을 넘었다.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었다. 나주시청에서 산포명장, 의회 전문위원을 경험했다. 1999년부터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살았다. 투자 유치, 조선산업 타당성 등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다. 여수 EXPO 조직위원회, 도의회 농수산 전문위원, 해외 유학,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 창조산업과장을 거쳤다. 도청 과장 자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조직을 직접 이끄는 모험이 있다.

명예롭게 자퇴한다

이에 비해 도청 국장은 직원에 대한 특성이나 역량 파악은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바귀 놓는 역할을 한다. 조직에 자극을 주고 큰 틀에서 성과를 내도록 조율해야 하는 자리다. 의회-언론-전문가-중앙부처, 국회와 주민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 감각이 필요해 반(半)은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도의 정책 방향을 관철시켜 나가는 일을 한다.

책임과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소리나지 않게 부드럽게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조직원들에게 성공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열심히 일한 소속 직원들을 승진시켜야 하는 책임도 따른다. 그동안 광양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국비 확보, 화순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유치, 광양항 24열 크레인 국비 확보, 지방자치단체개발원 교육생 대표, 에너지 밸리 기업 유치, 한전공대 나주 유치 등에 힘을 보탰다. 순천부시장 재직 시 천만 관광객 달성 및 2023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관광문화체육국장 때는 한국도탈관광패키지(KTTP) 공모 사업 선정,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의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심사 통과 등을 통해 조직에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6월 17일자로 명예퇴직하면서 지방이사관으로 승진한다. 5급으로 출발해 세 번 승진했으니 감사한 일이다. "박수칠 때 떠나리"라는 말처럼 박수 쳐 줄 때 떠나려 한다.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일이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공무원은 기업과 주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듯, 의사가 환자를 친절하고 편하게 대하듯 주민과 기업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한다.

전남도청은 지금 활력이 넘쳐 난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지사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더 본질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받고 승진하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을 좌절시키거나 일 하지 않은 분위기로 몰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쁜 인사 정책이다. 나쁜 인사 정책은 공무원들의 혁신 역량을 좌절시키고 조직 성과를 무너뜨린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통해 어떻게 해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지방행정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주민과 기업인들이 행복해지는지를 터득했다. 지난해 7월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서 올 때 "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사고 방식으로 조직을 자극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광주일보의 인사평을 받은 것도 그 덕분일 것이다. 리더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적기에 내려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편하다.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

무너지는 독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막았다는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가 있다.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제때 하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공직 후배들이 꼭 가슴에 새겨 두기를 바란다.

社說

‘광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 K방역 모델 됐다

광주시가 민관 협치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방역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시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책임방역제는 식당·카페·노래방 등 유흥시설의 영업을 24시간 허용하는 대신 방역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믿고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방역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다.

유흥시설 영업주나 종사자들은 2주마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주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는 민관협치의 성공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무지구 등지에선 상인들이 스스로 '방역 수칙 위반 시 가게 문을 닫겠다'며 자체 방역 시스템까지 가동할 정도로 의욕을 보이며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광주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

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우려했던 유흥업소의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감염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도 도입 후 상인들의 매출 상승 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광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가 K방역의 모델이 될 만하다.

광주시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적 모임을 현재 4인에서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광역시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1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광주 지역 백신접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 서울 등 타 지역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광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발생하다간 혼순간에 확산되는 것이 코로나인 만큼 마스크를 벗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허술한 안전 관리 '학동 참사' 벌써 잊었나

'광주 학동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났음에도 다른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여전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잇따라 대형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를 비롯해 광주 지역 여타 건설 현장을 취재한 결과 근로자들의 안전도 미작용, 추락방지용 안전망 미설치, 안전 로프 미작용 등 곳곳에서 허술한 안전 실태가 드러났다.

실제 동구 서석동의 한 건설 현장 3층에서는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추락방지용 안전장치가 없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명동 교회 신축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건물 외벽에서 타일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추락 방지용 안전로프는 보이지 않았다. 추락 방지망 등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북구 봉흥동 지역주택조합·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 역시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안전대책 등이 미흡했다. 북구청은 이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해체계획서와 달리 철거공사를 실시한 재개발사업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광주 지역 건설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은 이미 '관행'이 된 지 오래다. 문제는 원칙과 기본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다는 데 있다. 당국이 안전 기준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더 현실적인 산재 예방책은 단호한 처벌이다. 허술한 안전 점검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김정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전남지회장은 "현장 점검과 지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감독 당국이 방문하기보다는 공문이나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건설사와 근로자들은 공사 원칙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 자신은 물론 시민의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국과 건설사 그리고 근로자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브라질·독일·이탈리아·아르헨티나·스페인. 월드컵 본선대회 단골 출전국이자 매년 우승을 다투는 축구 강국들이다. 이들 나라에 이어 한국은 9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한 여섯 번째 국가가 됐다. 세계에서 단 여섯 개 국가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셈이다.

한국 축구는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지만 그동안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특히 지난 두 대회 최종 예선에서는 조 1위를 놓치고 마지막 경기까지 순위 다툼을 펼친 끝에 가까스로 직행 티켓을 잡

카타르 가는 길

었다. 2014 브라질월드컵 때는 3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승점이었지만 골득실에서 1골 앞서 간신히 2위에 턱걸이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때는 최종전에서 1위 이란이 시리아와 비기는 바람에 3위와 승점 2점 차이로 힘겹게 조 2위를 차지했다. 쉽게 풀리지 않았던 월드컵 예선 경기 내용은 매일 나오는 신문 제목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브라질월드컵 당시에는 '골은 안 터지고 속만 터졌다' '답답한 한국 축구, 축배를 들 수 없다' 등의 큼직

한 제목이 지면을 채웠다.

브라질에서 눈물을 삼킨 한국은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는 슈틸리케 감독을 선임했다. 전 대회 우승팀 독일 축구를 접목시키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독일 축구화 발에 맞을까'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결국 슈틸리케의 '무색무취' 전술은 한 수 아래였던 중국에 털리기를 감수하는 '창사 참사'로 끝이 났다. 뒤를 이은 신태용 감독은 두 경기 모두 비기고도 운 좋게 본선행 티켓을 잡았지만, '본선에 진출한 게 아니라 진출당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최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진출할 12개 팀이 확정됐다. 7월 1일 열리는 조 추첨에서 한국은 FIFA 랭킹에서 밀려 이란과 일본에 톱시드를 넘겨주고 2번 포트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벤투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의 길은 '이런! 또 이런?'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길은 '카타르 가는 길, 숙명의 한일전?'이다. 돌출 어느 길을 가든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